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ETF 자금의 향방

해외/정배율/배당

- 7월의 변동성 장세를 벗어난 8월초 KRX ETF시장에서 0.4조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함. 국내자산에서는 유출이 발생한 반면 해외자산으로는 자금이 유입됨.
- 8월 국내주식형 ETF 중 레버리지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시장지수 정배율과 KOSDAQ, 커버드콜과 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유입이 이루어짐.
- 8월 해외 주식형 ETF 중 미국자산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었으며, 채권형 ETF에서는 자금유출이 지속됨.

ETF 자금향배: 해외/정배율/배당 등으로 자금유입

8월 ETF시장 자금순유출: 8월초 KRX ETF 시장에서 4,100억원 규모의 자금유출이 발생함.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였던 7월에 19.2조원이 유입된 것과 달리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진정된 8월에 자금이탈이 발생하였음. 국내자산에서는 7,100억원이 이탈하였지만 해외자산으로는 3,200억원이 유입됨에 따라 ETF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대상을 전환하고 있음.

자산별 ETF 자금흐름: 국내 주식형 ETF에서는 KOSPI 투자 ETF는 소폭의 자금유출을 기록한 반면 KOSDAQ 투자 ETF는 1,300억원의 자금유입을 8월에 기록하였음.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대규모 자금유출이 관찰되었지만 이탈자금의 대부분이 정배율(1배) ETF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해외 주식형 ETF에서는 여전히 미국투자 ETF으로 자금유입이 관찰됨. 아시아 투자 ETF는 연중 내내 자금이탈이 지속됨. 채권형 ETF의 부진한 성과로 자금유출이 이어짐. 올해 들어 혼합형 ETF(주식+채권)로 매월 1.5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8월 초반에는 일시적으로 유출이 발생함.

과도한 쏠림현상으로 발생한 변동성 장세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ETF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분산된 시장지수형 정배율 ETF로 투자대상을 이동하였음. 변동성 장세와 주가하락의 위험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주간 KOSPI200 전망:** 기술적 반등 연장 여부

KOSPI200 주간 예상 밴드: 800pt (7/29 장중 저점)

~1,200pt (지수 60일 이평선)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주간 선물/옵션 사항

급락 후 기술적 반등시도

- 단기 저항대 돌파강도가 관건
 - KOSPI200, 지수 20일 이평선의 저항대 앞두고 숨고르기
 - KOSDAQ150, 기술적 반등 진행중이지만 거래가 부족한 편

KOSPI200, 단기 저항대 돌파강도가 관건

- KOSPI200, 지수 20일 이평선의 저항대 돌파 시도
 - 800pt 저점 확인 이후 반등시도
 - 중첩된 매물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급 또는 모멘텀 필요한 시기
- 외국인, KS200선물 7월 10조원 순매수에서 8월 5조원 순매도로 반전
 - 포트폴리오 손익고정(900pt)을 위한 선물매도 추정
 - 외국인의 선물매도로 KS200선물 저평가 상태로 진입

KOSDAQ150, 상대적으로 강한 기술적 반등 탄력

- KOSDAQ150, 단기 저항대인 지수 20일 이평선을 상향돌파
 - KOSPI의 대안으로 KOSDAQ 저가매수 자금유입
 - 1,600pt대의 저항대 돌파를 위한 추가 반등에너지 필요한 시기
- 시장에너지(거래량)의 회복이 관건
 - 저가 매수를 위한 스마트머니 유입 여부가 중요
 - 반등국면에서 외국인의 프로그램매도 출회가 부담

기술적 반등 연장 여부

- KOSPI200 예상 지수대 참조
 - : 저점 - 800pt (7/29 장중 저점 구간)
 - : 고점 - 1,200pt (지수 60일 이평선)

ETF 자금의 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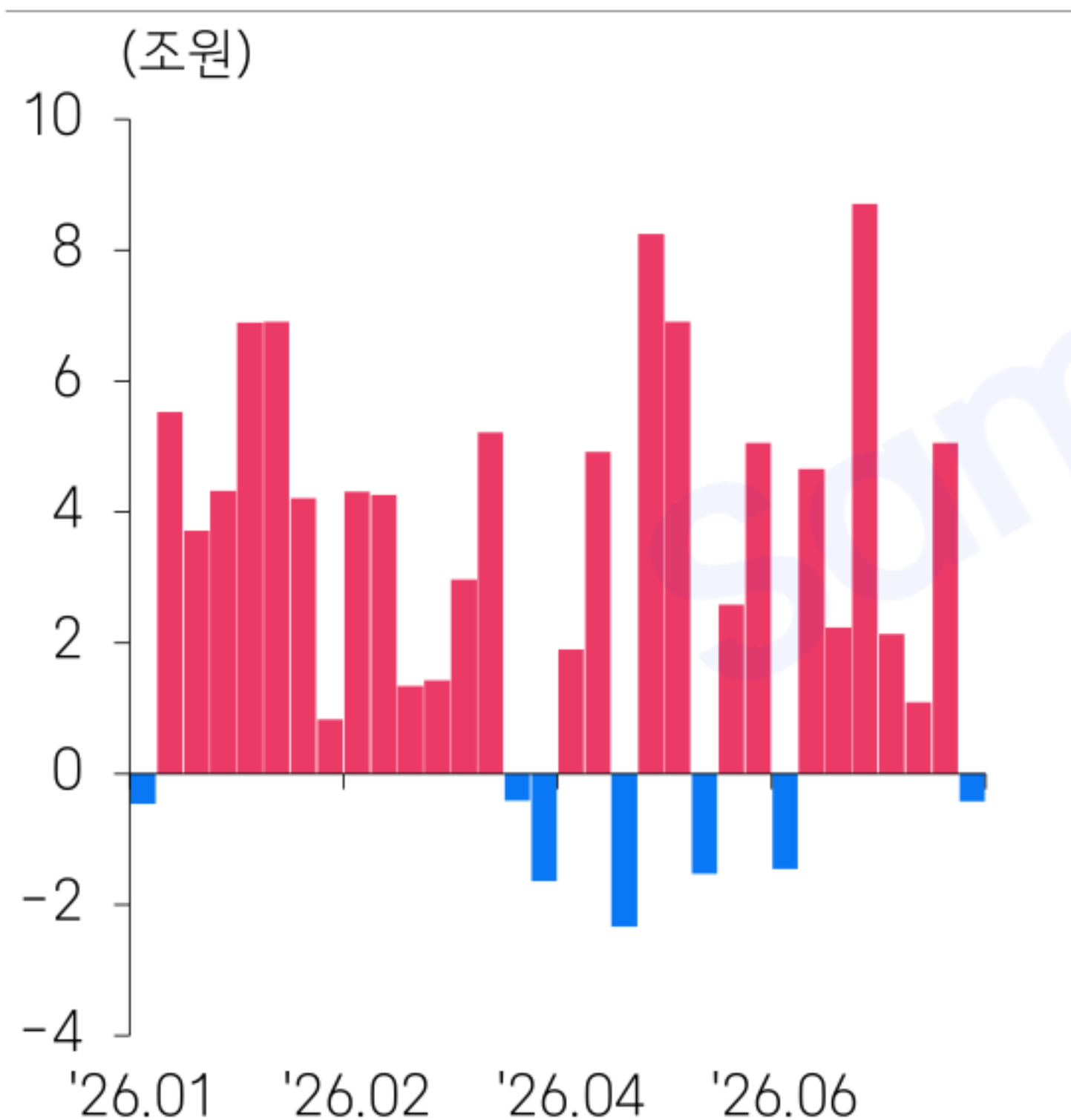
8월들어 정배율/해외/배당으로 유입되는 ETF 자금

국내자산 중심으로 자금이탈 but 해외자산으로는 자금유입: KOSCOM(CHECK)에 따르면, 8월초 (8/3~8/6) 한국의 ETF시장에서 전체 순설정환매자금은 4,100억원 유출되었음.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렸던 7월에는 ETF시장에 월간으로 19.2조원이 유입된 것에 비해 변동성이 진정되는 8월 첫 주에는 자금이 소폭이나마 이탈하였음. 변동성 구간에서 시달린 국내자산 투자자들이 해외자산으로 눈을 돌렸음.

국내자산 ETF에서는 8월 첫주 7,150억원의 자금이 이탈한 반면 해외자산 ETF에는 3,23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음. 국내자산 ETF의 자금이탈 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이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규제 강화로 인해 8월들어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에서 2,900억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서 7,2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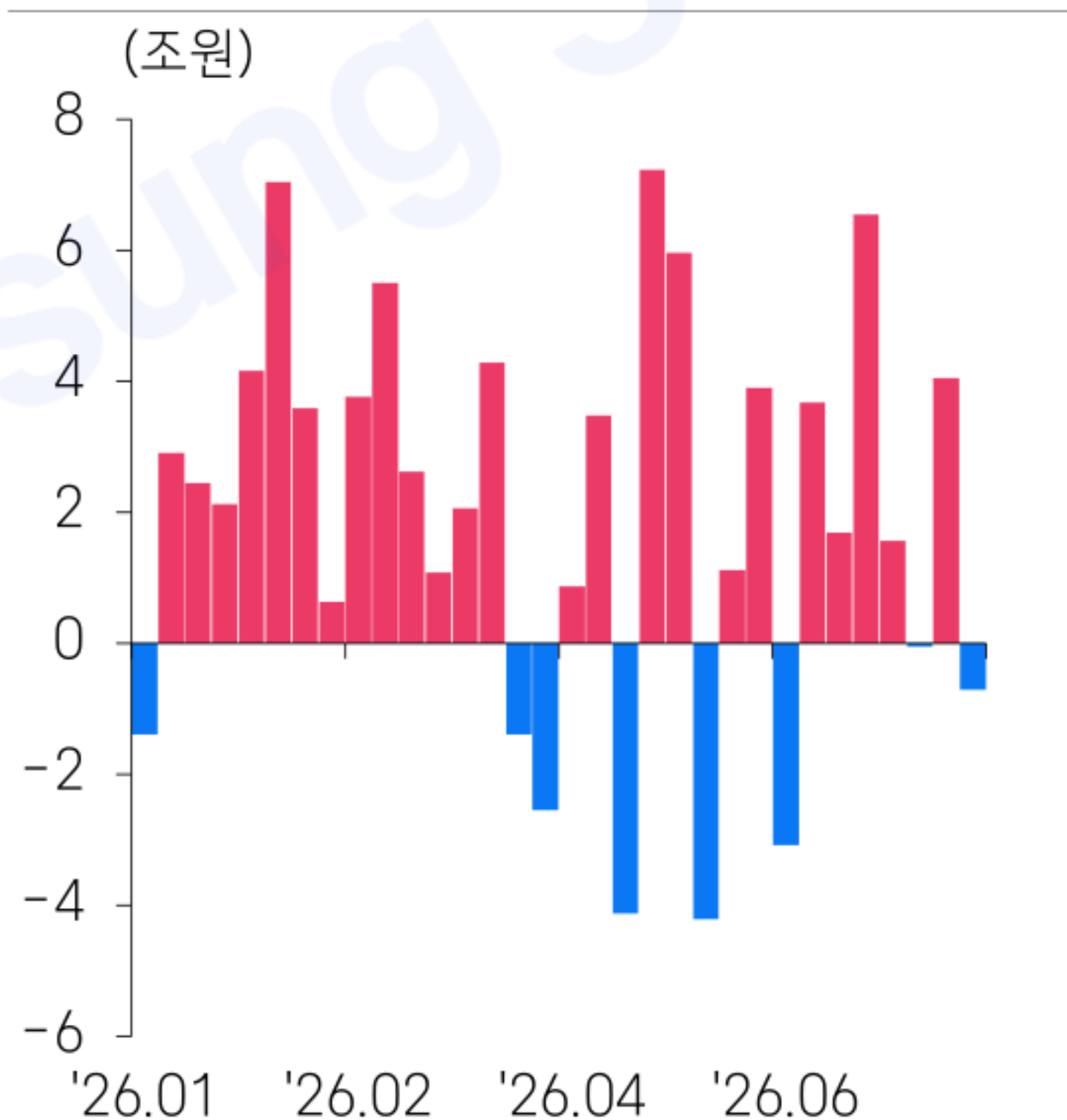
반면 해외자산 ETF에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자금유입이 이루어졌음. 7월에 5.1조원의 자금유입이 이루어진 이후 8월에도 3,230억원의 자금유입이 발생하였음. 국내 자산에서 이탈한 자금의 일부가 해외자산으로 유입된 양상임. 8월들어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행진을 보임에 따라 해외 주식 중심으로 해외자산 ETF에 대해 투자수요가 확장한 것으로 보임.

전체 ETF 순설정환매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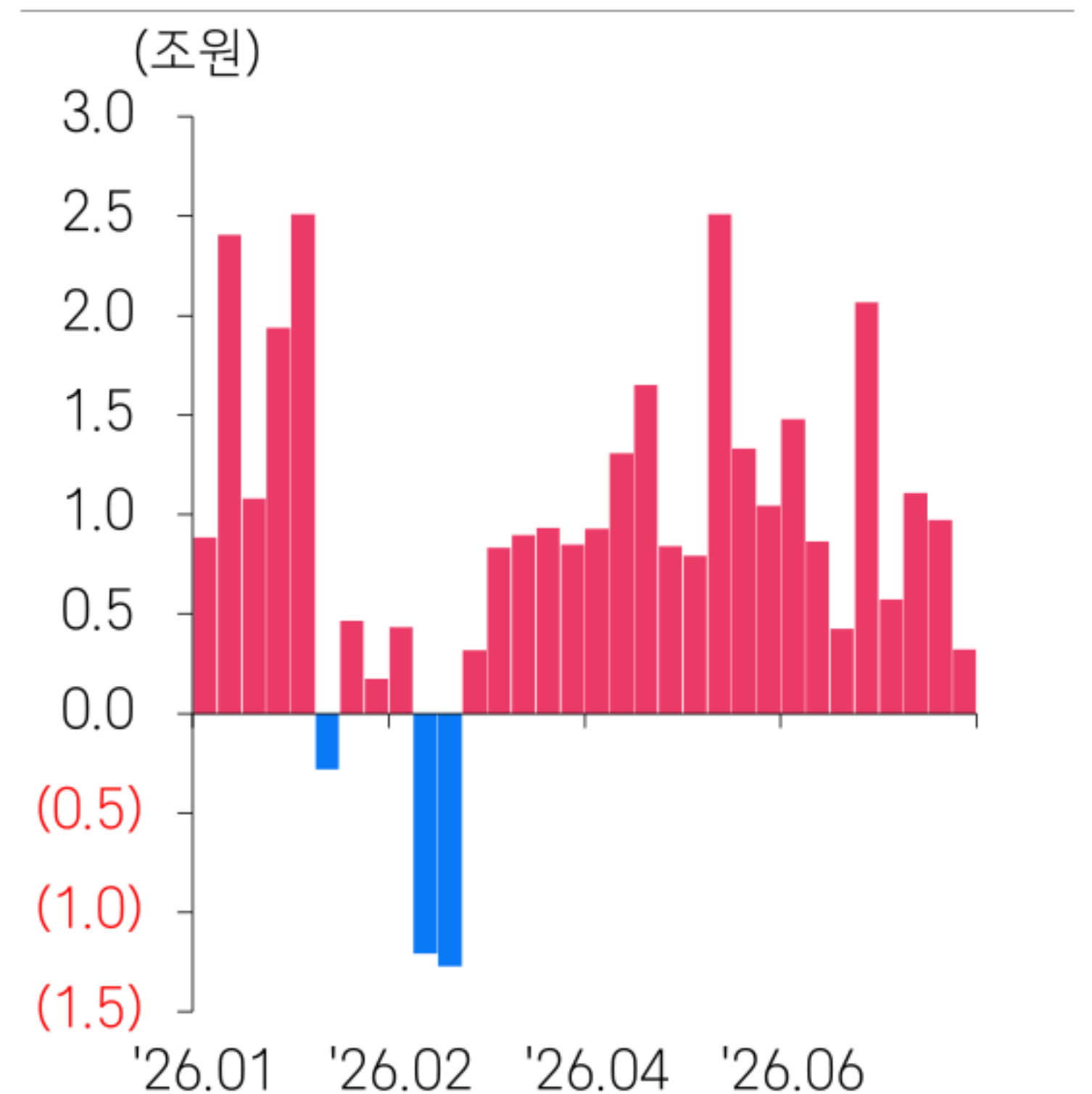
참고: 주간 Data
자료: KOSCOM, 삼성증권

국내자산 ETF 순설정환매자금 추이



참고: 주간 Data
자료: KOSCOM, 삼성증권

해외자산 ETF 순설정환매자금 추이



참고: 주간 Data
자료: KOSCOM, 삼성증권

국내 주식형, KOSDAQ과 정배율로 자금유입: 국내 주식형 ETF의 자금유출입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8월에 자금유출이 발생하였음. 1월~7월에 국내 주식형 ETF에 유입된 자금은 월평균 8.5조원에 달함. 특히 변동성이 극심하였던 7월에 14.0조원의 자금 순유입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국면에서도 투자자금이 대규모 유입되었음. 반면 8월 주식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구간에 소폭이나마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KOSPI형 ETF에서 자금유출이 집중되었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에서 발생한 자금유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함.

8월에 KOSDAQ형 ETF으로 1,310억원의 자금유입이 발생함. KOSPI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저가매수 차원에서 KOSDAQ ETF 으로 자금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KOSPI형 ETF에서 이탈한 자금 중 일부가 KOSDAQ형 ETF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2026년 국내 주식형 ETF 시장별 순설정환매자금 추이

(단위: 십억원)	KOSPI	KOSDAQ	KOSPI+KOSDAQ	전체
'26년 1월	702	5,043	2,455	8,200
'26년 2월	4,960	4,619	4,687	14,267
'26년 3월	3,237	1,215	7,120	11,573
'26년 4월	1,032	(1,136)	263	160
'26년 5월	348	(1,988)	5,114	3,473
'26년 6월	8,018	1,746	(1,531)	8,232
'26년 7월	10,263	1,926	1,857	14,046
'26년 8월	(84)	131	(56)	(10)

참고: 8월6일 현재
자료: KOSCOM, 삼성증권

레버리지와 인버스, 정배율 상품의 자금 유출입을 보면, 변동성이 극심하고 주가 약세가 심화되었던 7월에 정배율과 레버리지 ETF에 각각 7.7조원과 7.3조원의 신규자금이 유입되었음. 주가하락을 저가매수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역발상투자이지만 실질적인 투자성과는 부진하였을 것임. 반면 인버스 1X와 인버스 2X ETF는 7월에 자금이 이탈하였음. 주가 하락국면에서 유리한 인버스 상품에서 7월 자금유출이 발생한 것은 단기 이익실현(손절)에 집중한 결과로 해석됨.

8월 초반 국내주식형 정배율 ETF로는 8,700억원의 자금유입이 이루어진 반면 레버리지 ETF에서는 8,800억원의 자금유출이 기록되었음. 7월과 달리 기술적 반등국면인 8월에 레버리지 ETF에서는 자금이 탈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자금의 상당부분이 정배율 상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단기 모멘텀 투자보다는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기에 새로운 투자방향을 모색하는 시도가 8월초에 진행되었음.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유입 패턴을 보면, 지난 4월~5월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자금이탈이 발생하고 6월~7월 변동성 증폭과 약세구간에서는 오히려 자금유입이 발생하는 역발상 투자가 뚜렷하게 나타남. 반면 인버스 ETF는 7월에 집중적으로 자금이탈이 발생하였음. 특히 인버스 2X ETF가 인버스 1X에 비해 2배나 많은 자금유출이 발생함. 주가 하락을 계기로 기존 물량의 이익실현(손절)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됨.

2026년 국내 주식형 ETF 배율별 순설정환매자금 추이

(단위: 십억원)	+1배	-1배	+2배	-2배
'26년 1월	7,238	205	214	543
'26년 2월	12,365	296	1,031	574
'26년 3월	10,416	(30)	1,450	(263)
'26년 4월	849	88	(1,275)	497
'26년 5월	3,230	315	(1,671)	1,599
'26년 6월	1,827	20	6,125	260
'26년 7월	7,756	(331)	7,299	(677)
'26년 8월	872	(35)	(883)	35

참고: 8월6일 현재
자료: KOSCOM, 삼성증권

국내 주식형 ETF, 배당과 커버드콜에 관심: 커버드콜 ETF는 올해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었음. 특히 변동성이 심화되었던 7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자금유입(1.5조원)이 기록되었음. 주식시장의 하방위험과 변동성 상승위험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임.

배당형 ETF는 올해 자금유출이 지속되었음. 특히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던 5월에는 5,300억원의 자금유출이 발생하여 모멘텀 장세에서 배당과 같은 가치형 투자의 열위를 실감하였음. 8월에 배당형 ETF로 자금유입(410억원)이 발생한 것은 하반기 성장모멘텀의 둔화 가능성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밸류 중심의 투자전략으로 일부 선회하였기 때문임.

2026년 국내 주식형 ETF 투자전략별 순설정환매자금 추이

(단위: 십억원)	업종테마	커버드콜(구조화)	배당	Active
'26년 1월	2,586	495	(53)	817
'26년 2월	2,975	701	976	755
'26년 3월	6,460	1,146	477	2,260
'26년 4월	935	1,134	(25)	833
'26년 5월	5,636	1,251	(531)	271
'26년 6월	764	1,000	(481)	347
'26년 7월	1,742	1,521	(106)	1,094
'26년 8월	97	68	41	(33)

참고: 8월6일 현재
자료: KOSCOM, 삼성증권

여전히 미국 중심의 해외 주식형 ETF 자금흐름: 해외 주식형 ETF는 4월~7월까지 월평균 5.2조원의 꾸준한 자금유입이 관찰되었음.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ETF로의 자금유입은 진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해외 주식형 ETF의 자금유입은 미국향 투자자가 주도하였음. 특히 8월초 국내 주식형에서는 자금유출이 발생한 반면 해외 주식형 ETF에서는 북미 지역으로 5,100억원이 유입되는 등 순유입을 기록하였음.

아시아향 해외주식형 ETF는 올해 내내 순유출을 기록함. 중국의 로봇 및 AI산업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부진한 성과로 인해 투자자금이 이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중국 신성장 기업들의 IPO와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 해외 투자펀드의 중국 주식비중 확충이 진행된다면 아시아향 ETF 자금유입도 기대할 수 있음.

2026년 해외 주식형 ETF 지역별 순설정환매자금 추이

(단위: 십억원)	전체	북미	아시아	글로벌
'26년 1월	7,023	6,850	(72)	212
'26년 2월	844	962	(174)	(35)
'26년 3월	(575)	84	(415)	(226)
'26년 4월	4,479	4,368	(109)	222
'26년 5월	6,036	5,767	(259)	553
'26년 6월	5,581	4,721	(247)	1,113
'26년 7월	4,804	4,668	114	20
'26년 8월	322	515	(40)	(151)

참고: 8월6일 현재
자료: KOSCOM, 삼성증권

채권형 ETF의 자금유출과 혼합형 ETF의 자금흐름 반전여부: 올해 채권형 ETF의 성과는 국내외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였음. 채권형 ETF의 자금흐름은 유출입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패턴을 보임. 4월 일시적으로 금리 상승세가 중단되면서 채권형 ETF으로 2.3조원의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6월 이후 3개월 연속 자금유출이 발생하였음.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7월에 채권으로의 자금유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안전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 방어수단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하반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현금유동성에 버금가는 KOFR/CD/SOFR 등 단기자금형 ETF 역시 올해 YTD 3.9조원의 자금이탈을 기록함. 흥미로운 점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7월에 2,500억원의 자금유입이 발생한 부분임.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려는 보수적 자금관리 차원으로 읽히는 부분임.

2026년 ETF시장 자금흐름에서 주목할 부분은 혼합형 ETF로의 자금유입임. 월평균 1.5조원의 자금유입이 관찰되었음. 주식과 채권의 결합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한데다, 올해에는 Top2 개별종목과 국내외 채권의 결합 방식으로 주식시장의 모멘텀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공격적 투자자에게도 유리한 상품구조가 혼합형으로 다수 개발되었음. 다만 7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채권시장의 금리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부진해 지면서 혼합형 ETF로의 자금유입이 위축되었으며, 8월에는 순유출로 전환되었음. 올해 하반기 혼합형 ETF의 자금유출이 심화되는 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채권 및 혼합형 ETF 순설정환매자금 추이

(단위: 십억원)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단기자금	혼합형
'26년 1월	1,477	61	(426)	1,770
'26년 2월	(235)	(497)	(124)	1,161
'26년 3월	(321)	(428)	(216)	1,175
'26년 4월	2,294	11	50	1,541
'26년 5월	478	(120)	(473)	2,048
'26년 6월	(2,075)	(586)	(2,773)	2,422
'26년 7월	(155)	73	251	830
'26년 8월	(426)	(19)	(182)	(55)

참고: 8월6일 현재
자료: KOSCOM, 삼성증권

하반기 ETF 자금흐름의 향방: 8월 초반 ETF 순설정(=자금유입) 상위종목은 대부분 국내외 시장대표지수형 ETF들임. 국내형 ETF에는 주식시장의 7월 급락이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해외형 ETF에는 주식시장의 사상최고치 경신에 따른 추격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올해 상반기 반도체 Top2에 쏠렸던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분산된 지수형 상품으로 이동한 결과임.

단기자금형 ETF로의 자금유입은 향후 주식시장의 모멘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면서 관망세를 취하려는 중립적 투자성향의 선택으로 보임. 단기 회사채 ETF로의 자금유입은 높아진 금리로 얻을 수 있는 Carry 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임. 반대로 중장기 국채 ETF에서는 여전히 자금이탈이 이어졌음.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해당 상품에서의 자금이탈이 8월초반 급격히 증가하였음. 7월에 수조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과 상반된 현상으로 해당 상품의 가격급락과 규제심화가 자금유출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이탈한 자금 중 일부가 반도체 레버리지와 KOSPI200 레버리지 ETF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임.

반도체 테마투자에 대한 자금흐름이 엇갈림. 유입은 물론 유출에서도 반도체 섹터/테마 ETF가 상위권을 차지함. 특히 국내 반도체로의 자금유입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미국 AI반도체 테마형 ETF에서 자금유출이 심화되었음. 하반기 미국의 AI Hyperscaler의 과도한 투자지출과 수익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내 반도체 H/W로의 자금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관련 ETF의 자금흐름이 중요한 배경임.

설정환매 상위 ETF 현황

설정 상위 ETF	8월(백만원)	7월(백만원)	환매 상위 ETF	8월(백만원)	7월(백만원)
KODEX 200	382,716	1,993,097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520,043	2,563,976
KODEX 미국나스닥100	211,131	444,885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249,101	474,756
TIGER 미국S&P500	199,059	1,171,254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86,177	1,105,659
KODEX 코스닥150	152,215	696,533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115,333	-254,195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78,383	556,056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86,446	453,033
RISE 200	75,658	509,137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75,133	82,431
TIGER 미국나스닥100	72,581	609,098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73,425	249,509
KODEX 200선물인버스2X	70,387	-553,424	TIGER 반도체TOP10	-72,861	439,785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59,342	6,873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64,703	-187,982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59,003	-25,669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58,478	189,819
KODEX 반도체	58,526	244,153	KODEX 코리아밸류업	-57,018	-770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4,936	217,181	KODEX 은행	-54,040	-137,099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54,753	243,853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53,356	1,189,321
TIGER 200	53,149	853,308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	-47,303	-17,448
KODEX 반도체레버리지	52,532	88,407	TIME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46,278	-61,082
KODEX 레버리지	48,216	1,576,110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38,430	213,972
SOL 200TR	46,874	200,350	TIGER 반도체	-35,621	146,973
KODEX 27-12 회사채(AA-이상)액티브	45,102	-38,610	KODEX 인버스	-34,384	-250,122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44,195	246,510	PLUS 글로벌HBM반도체	-34,038	138,691
RISE CD금리액티브(합성)	42,884	280,687	TIGER 중장기국채	-33,077	-31,958
TIGER 미국테크TOP10INDXX	34,861	50,042	KODEX 200액티브	-32,285	130,449
RISE 중기우량회사채	34,198	103,438	HANARO FnK-반도체	-29,818	-371,516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33,698	54,743	KODEX 국고채3년	-28,440	-15,946
KoAct 코스피액티브	32,550	39,011	TIGER 미국필라델피아AI반도체나스닥	-27,571	-25,520
KODEX 2차전지산업	31,274	9,456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27,107	-13,729

참고: 유사 종목은 임의로 배제함. 8월6일 현재, 8월 기준으로 정렬함.
자료: KRX, 삼성증권

Market Data (8월 7일 현재)

KOSPI200 Big & Mini 선물 거래 동향 (주간+야간)

(계약수)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Big선물 당일 순매수	3,913	(2,710)	(351)	128
Big선물 누적포지션*	24,185	(9,414)	(8,846)	(344)
Mini선물 누적포지션**	94,004	(91,702)	1,290	(389)
전체 누적포지션***	42,986	(27,754)	(8,588)	(422)

참고: * Big선물 누적포지션은 2026/6/12부터 순매매의 누적임
** Mini선물 누적포지션은 2026/7/10부터 순매매의 누적임
*** 전체 포지션은 Big선물누적 + Mini선물누적/5로 산출함
자료: KRX, 삼성증권

Big선물 최근월물 기술적 지표 (pt, %)

피봇 2차 지지	1,027.08	지수 3일 MA	1,000.65
피봇 1차 지지	1,002.92	지수 5일 MA	1,000.49
피봇 포인트	983.03	지수 10일 MA	982.25
피봇 1차 저항	958.87	지수 20일 MA	1,045.08
피봇 2차 저항	938.98	볼린저밴드 상단	1,076.64
최근 5일 고가	1,055.40	볼린저밴드 하단	887.85
최근 5일 저가	955.65	%b 지표	0.48

참고: 지수 이동평균선은 전일 종가를 금일 개장 가격으로 의제하여 산출. 볼린저 밴드는 지수 1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함
자료: KRX, 삼성증권

Volatility Data (%)

(대표) Imp. Vol 현재	75.59	His. Vol 현재	96.20
Imp. Vol Max (5일 중)	82.63	His. Vol 5일전	99.28
Imp. Vol Min (5일 중)	75.58	His. Vol 20일전	101.70
Imp. Vol Max (20일 중)	93.27	His. Vol Max(20일중)	96.20
Imp. Vol Min (20일 중)	75.58	His. Vol Min(20일중)	101.70

참고: Historical Volatility는 30일간 수익률의 연율화된 표준편차
자료: KRX, 삼성증권

KOSPI200 Big & Mini 옵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기타법인
Call	누적 (계약)	(10,381)	8,680	(3,390)	(1,509)
	누적 (백만원)	237	34,375	(20,655)	(4,461)
Put	누적 (계약)	19,794	(1,428)	(325)	(2,914)
	누적 (백만원)	68,295	(89,995)	(724)	1,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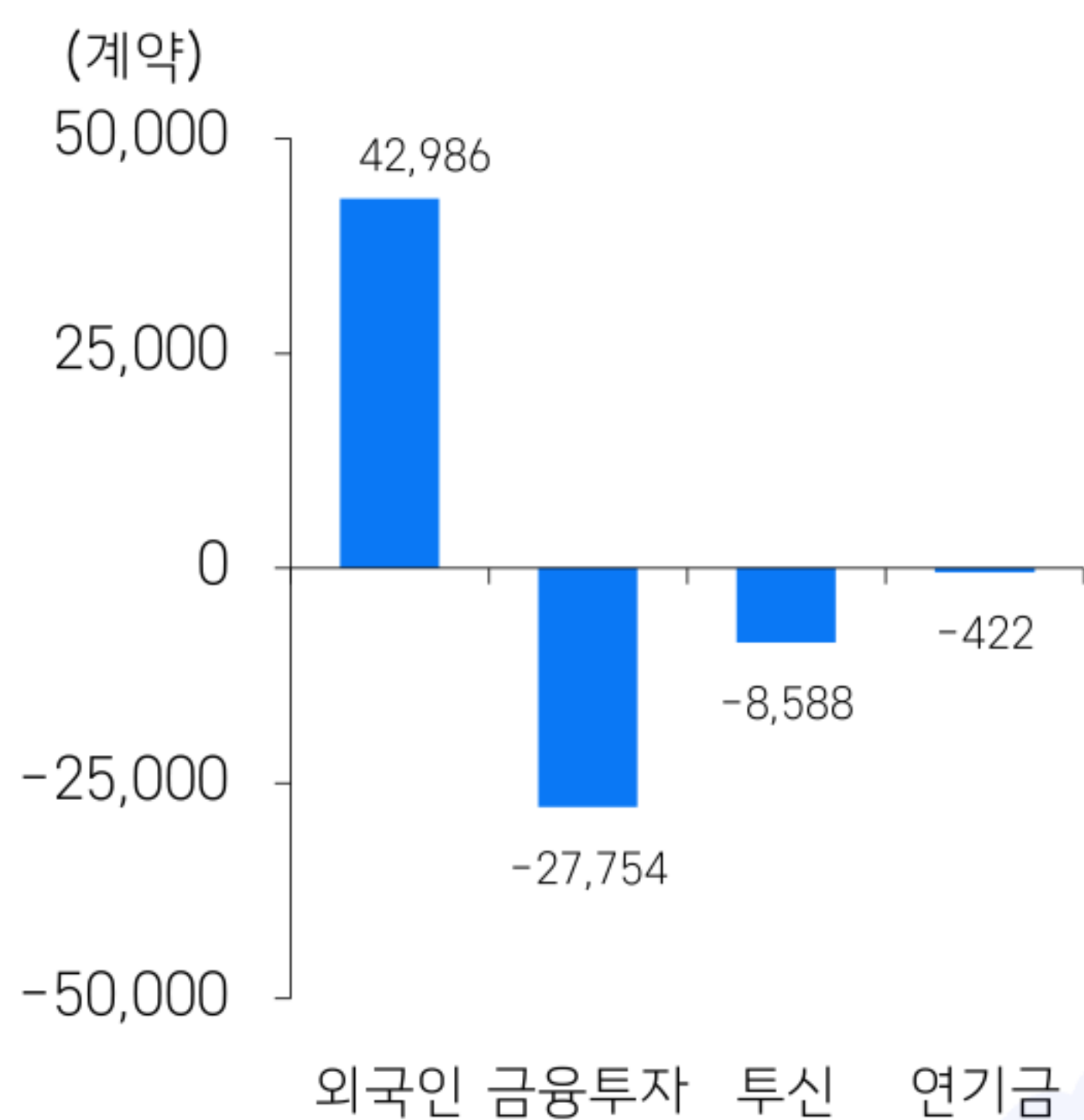
참고: 누적 포지션은 2026/7/10 이후부터 집계함
자료: KRX, 삼성증권

Market Data (8월 7일 현재)

외국인, KOSPI200 선물 7월 순매수에서 8월 순매도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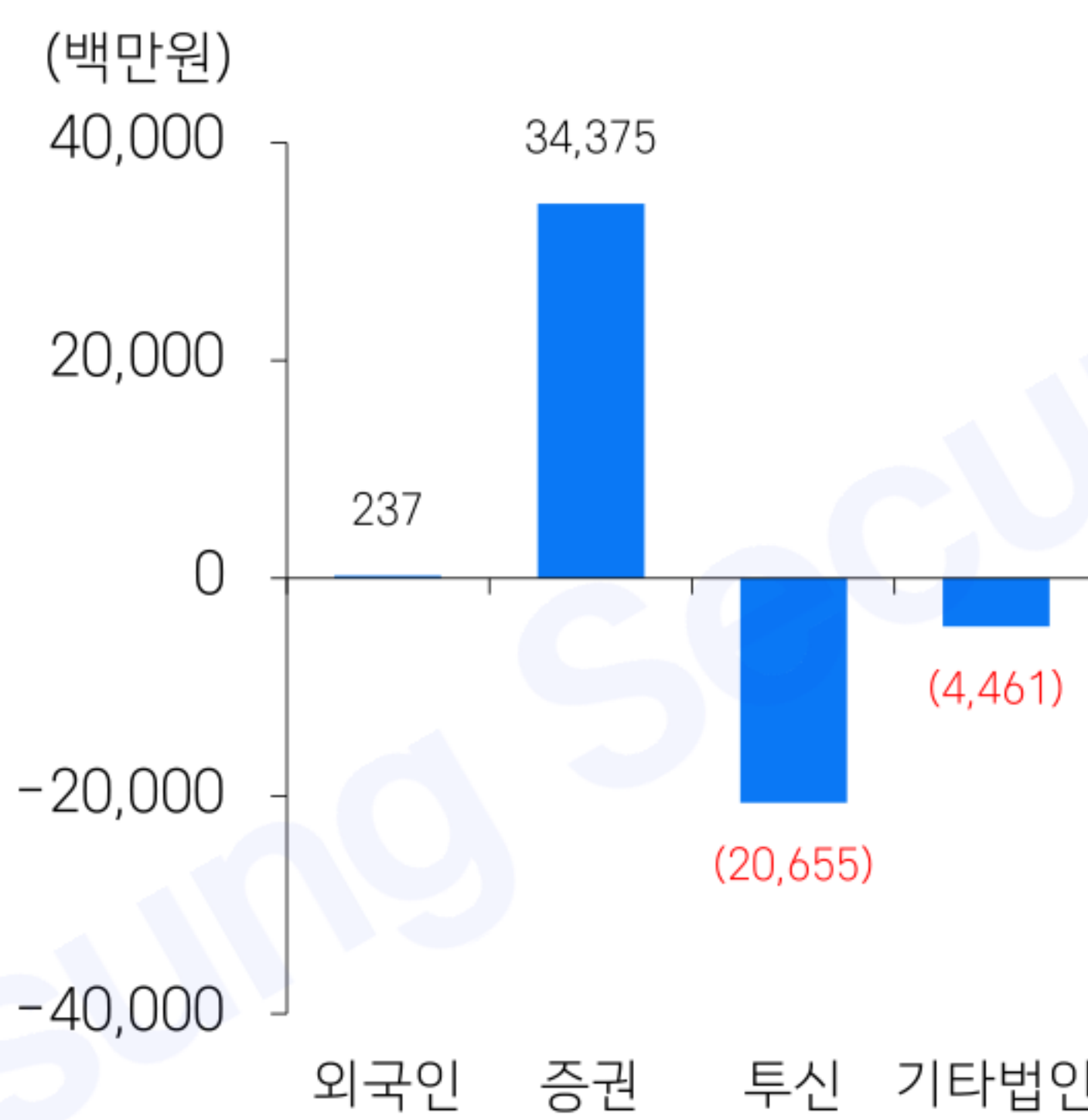
- 외국인, 7월 10조원 순매수에서 8월초 4조원 순매도로 반전
 - 7월 매도헤지 청산과 변동성 진정에 따른 Target Vol 선물매도 축소
 - 8월, 현재 주가수준으로 포트폴리오 수익성 fix를 위한 헤지성 매도
 - 외국인 선물매도 압박으로 시장베이스스 위축
-
- 외국인, Put옵션 대규모 순매수 → 기존 매도물량의 환매수 & 변동성 진정에 따른 하방위험 커버
 - 외국인, Mini옵션에서는 Call 순매수 & Put 매도로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 형성
 - 금융투자, Long Call & Short Put으로 합성선물 매도 포지션 구축

선물 투자자별 매매동향(Big+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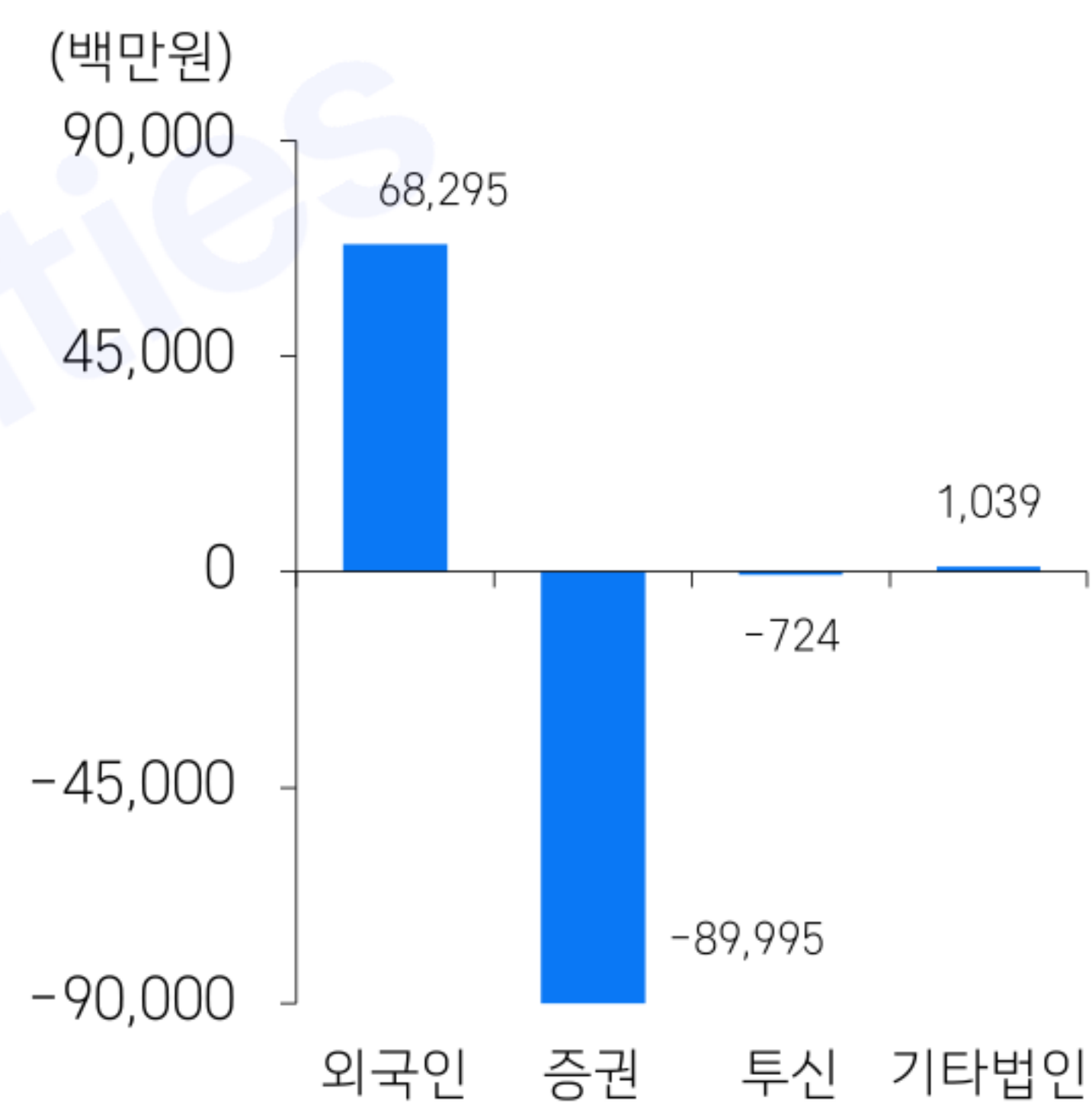
고: 2026/6/12 이후 순매수 누적, 주간+야간 합계
Mini선물은 2026/7/10 이후 순매수 누적
자료: KRX, 삼성증권

Call옵션 투자자별 매매 동향(Big+Mi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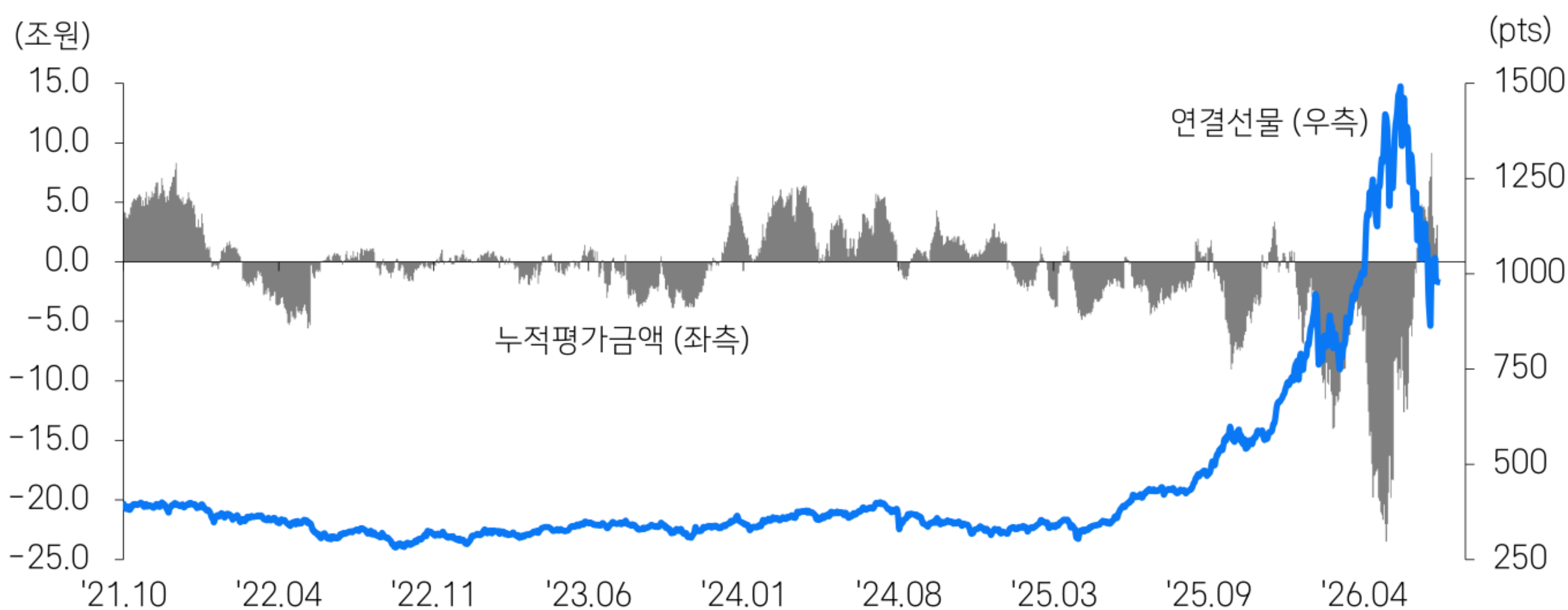
참고: 2026/7/10 이후 순매수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Put옵션 투자자별 매매 동향(Big+Mini)



참고: 2026/7/10 이후 순매수 누적, 거래대금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외국인 투자자 장기누적 선물포지션 (8월 7일 현재 3.5조원 순매수 추정)



참고: 최근월물 기준 정규(Big+Mini) & 야간 & Roll-over 반영, '17년 8월 7일 이후 거래승수 조정 반영
자료: KRX, 삼성증권

삼성 Investment Risk Index

투자위험 평가지표: 삼성 투자위험 지표 (삼성 I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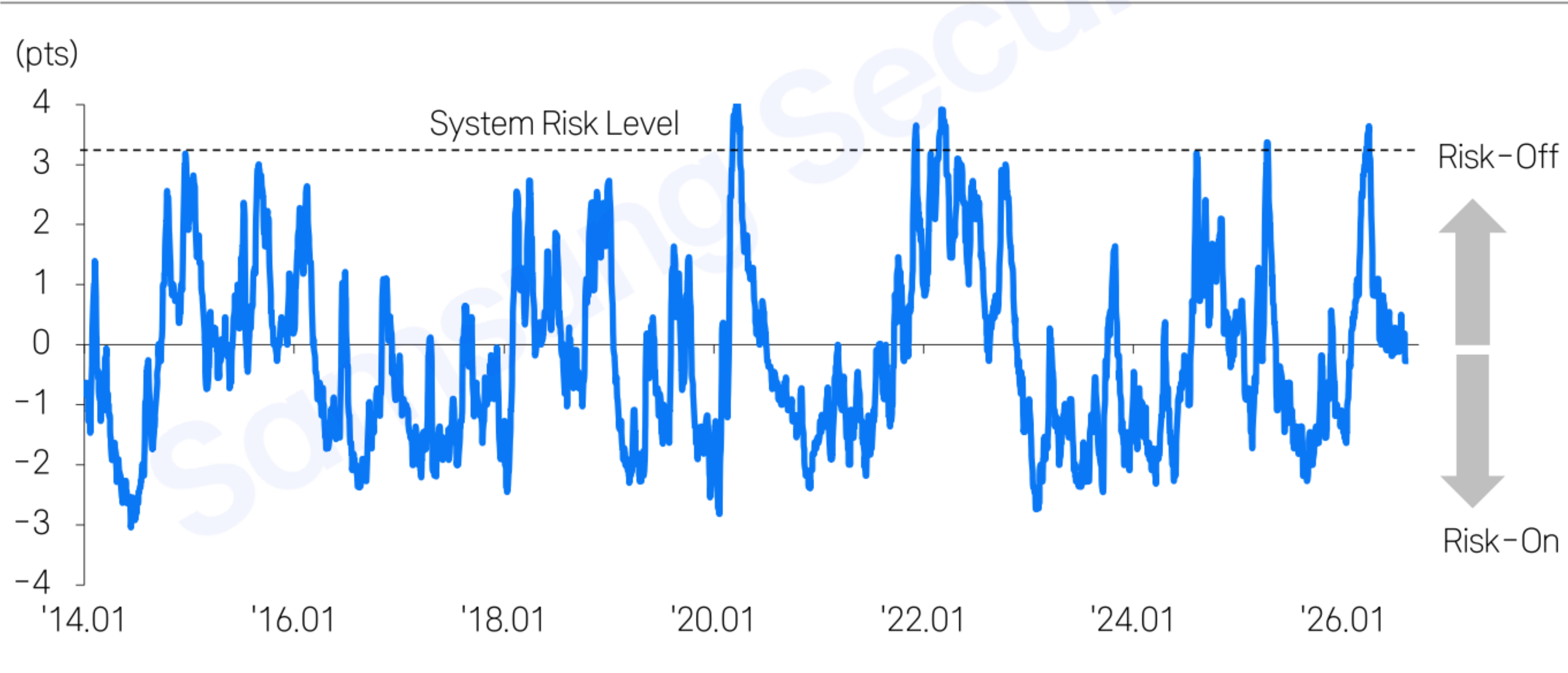
- 자료 참조: 전균, "삼성 Investment Risk Index" (2015년 2월 발간)
- 금융시장 변동성과 자금 동향, 수급 동향을 종합한 투자위험 평가지표 (등락구간 -4pt ~ +4pt)
- 기준선 상회는 Risk-Off 국면, 기준선 하회는 Risk-On 국면
- +3.0pt 이상은 시스템위기 고조

※ 삼성 투자위험 지수는 금융시장의 위험수준 확대/축소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됨
위험 고조 국면(+3pt 이상)에서 역행 전략(주식 매수)을 위한 투자신호로 해석할 경우 투자 성과를 보장할 수 없음

삼성 투자위험 지수, 기준선 중심으로 등락 거듭

- 한국과 신흥주식시장의 변동성 수준이 7월에 비해 소폭 하락반전하였음
- 선진국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 수준은 7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 선진국과 신흥국의 투자위험지표 엇갈림으로 삼성투자위험지수 역시 기준선 중심으로 등락 지속함
-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 진정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반등여부 주목해야
- 3분기 Risk-On/Off 불안정한 균형 지속될 수 있어

삼성 투자위험 지수



자료: Bloomberg, KRX, 삼성증권

구성 항목별 월별 일평균 수준

(지수)	2026년6월	2026년7월	2026년8월
VIX(미국)	(0.68)	(0.96)	(1.25)
VKOSPI(한국)	4.00	3.13	2.50
VSTOXX(유럽)	(0.82)	(1.22)	(1.50)
VXEEM(EM)	3.73	2.78	1.50
MOVE(미국채권)	(0.45)	0.00	1.00
FX Vol(환율)	(2.82)	(3.04)	(2.00)
회사채스프레드(한국)	1.45	3.57	3.00
EMBI+ Spread(신흥국)	(2.77)	(1.43)	(0.50)
IG CDX(미국)	(1.00)	(0.70)	(0.50)
CDS 스프레드(한국)	(1.00)	(1.00)	(1.00)
Fund Flow(아시아)	1.36	0.04	(2.00)

참고: 2026년 8월 6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장변동성 관련 Data

VKOSPI, 80% 하향이탈

- 당분간 기간조정 기대하면서 변동성 하향 안정화
- 주식시장 상승반전시 변동성지수 점진적으로 하강 예상

VKOSPI반영 KOSPI200 예상 등락구간

(pt)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Up	985.4	989.8	993.2	996.0	998.5	1,000.8
Down	964.1	959.7	956.3	953.4	950.9	948.6

참고: 8월 7일 종가 기준
자료: KRX, 삼성증권

한국 변동성지수(VKOS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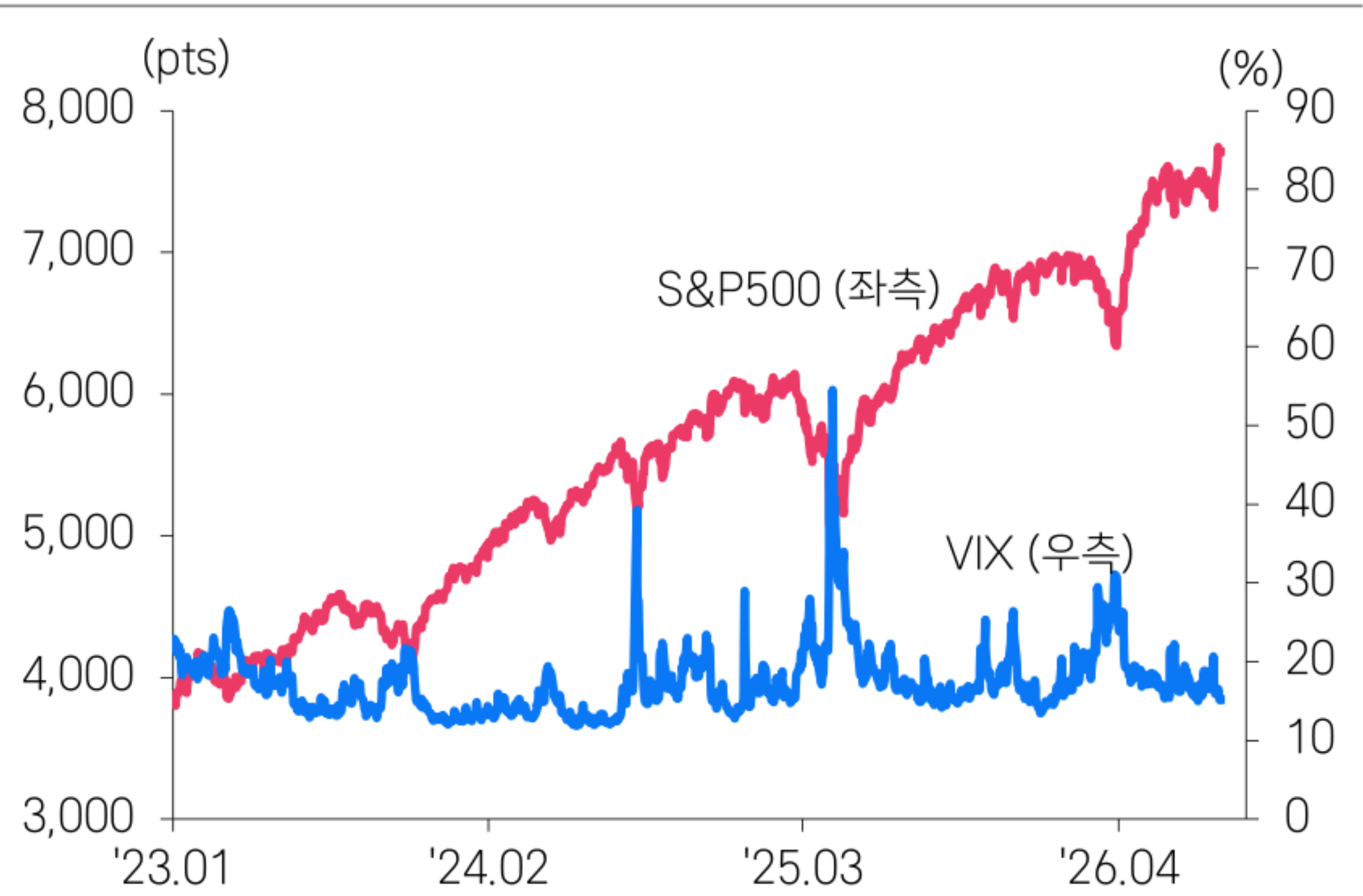


자료: KRX, 삼성증권

주식시장의 신고가 갱신과 더불어 위험지표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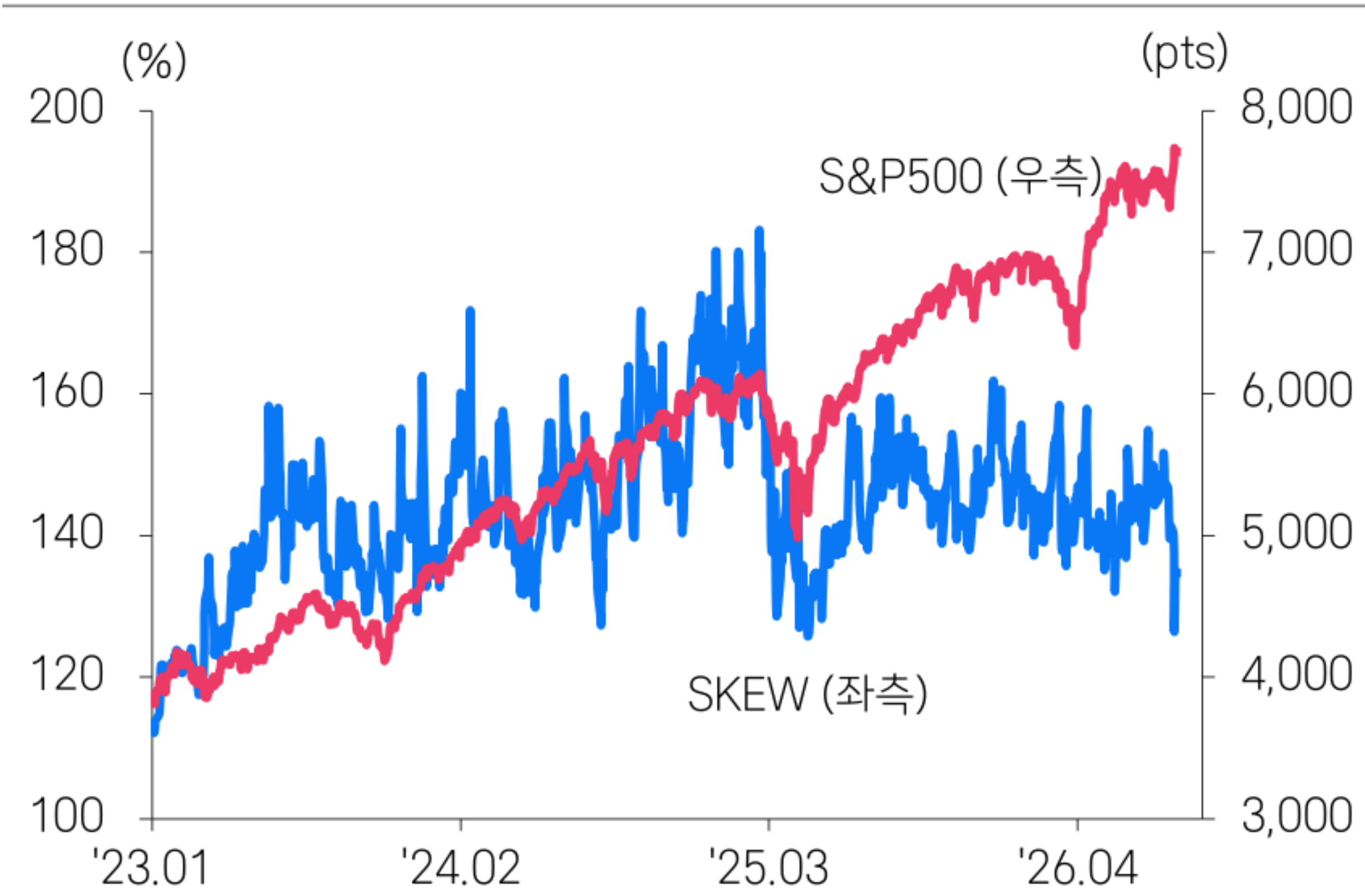
- Tail risk 측정지표인 SKEW, 2025년 저점 수준까지 급락
- 변동성지수(VIX), 연중 저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미국 S&P500과 변동성지수 VIX



자료: CBOE,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S&P500과 SKEW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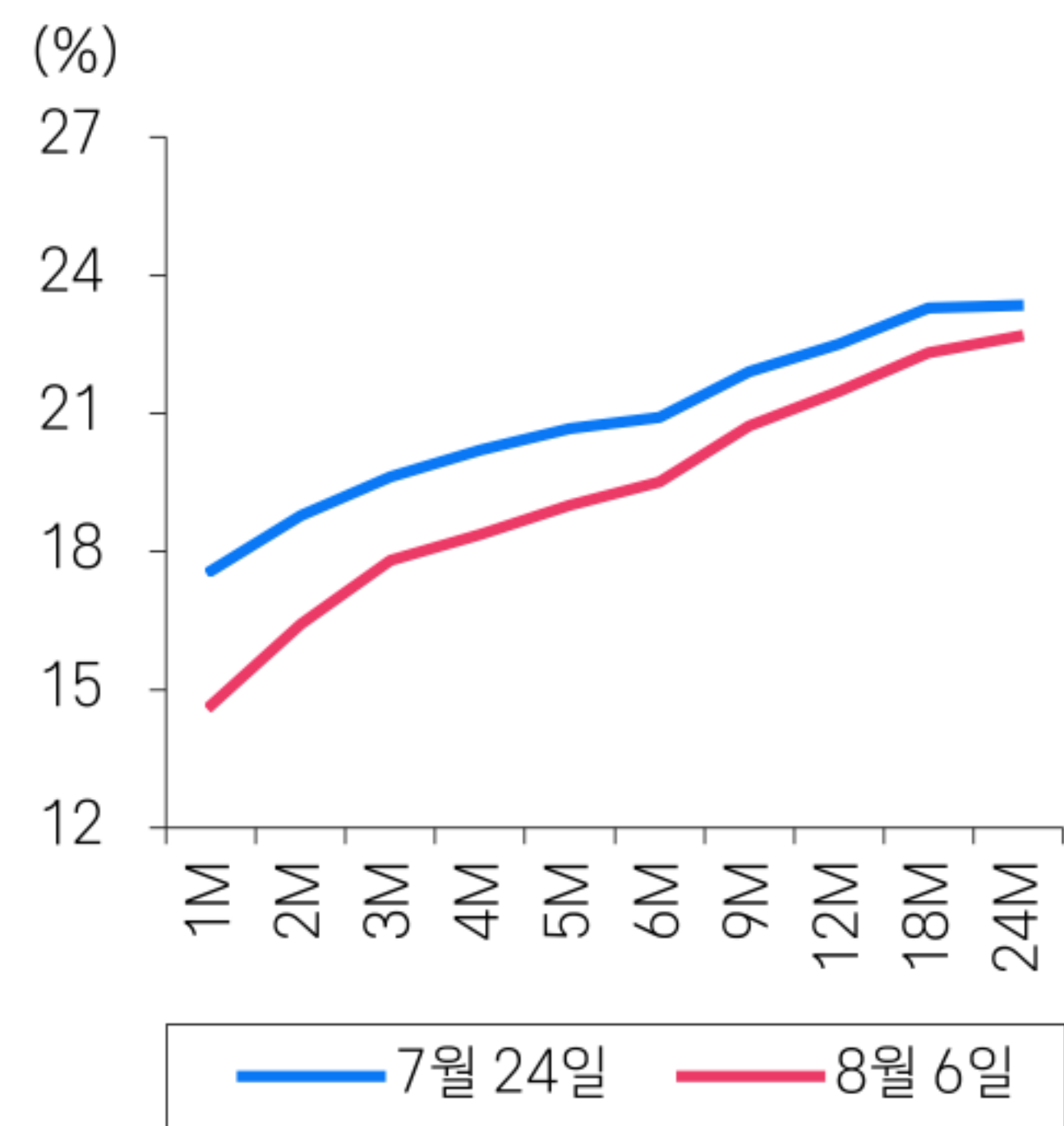
자료: CBOE, Bloomberg, 삼성증권

분산 스왑(Variance Swap) 기간구조

단기 변동성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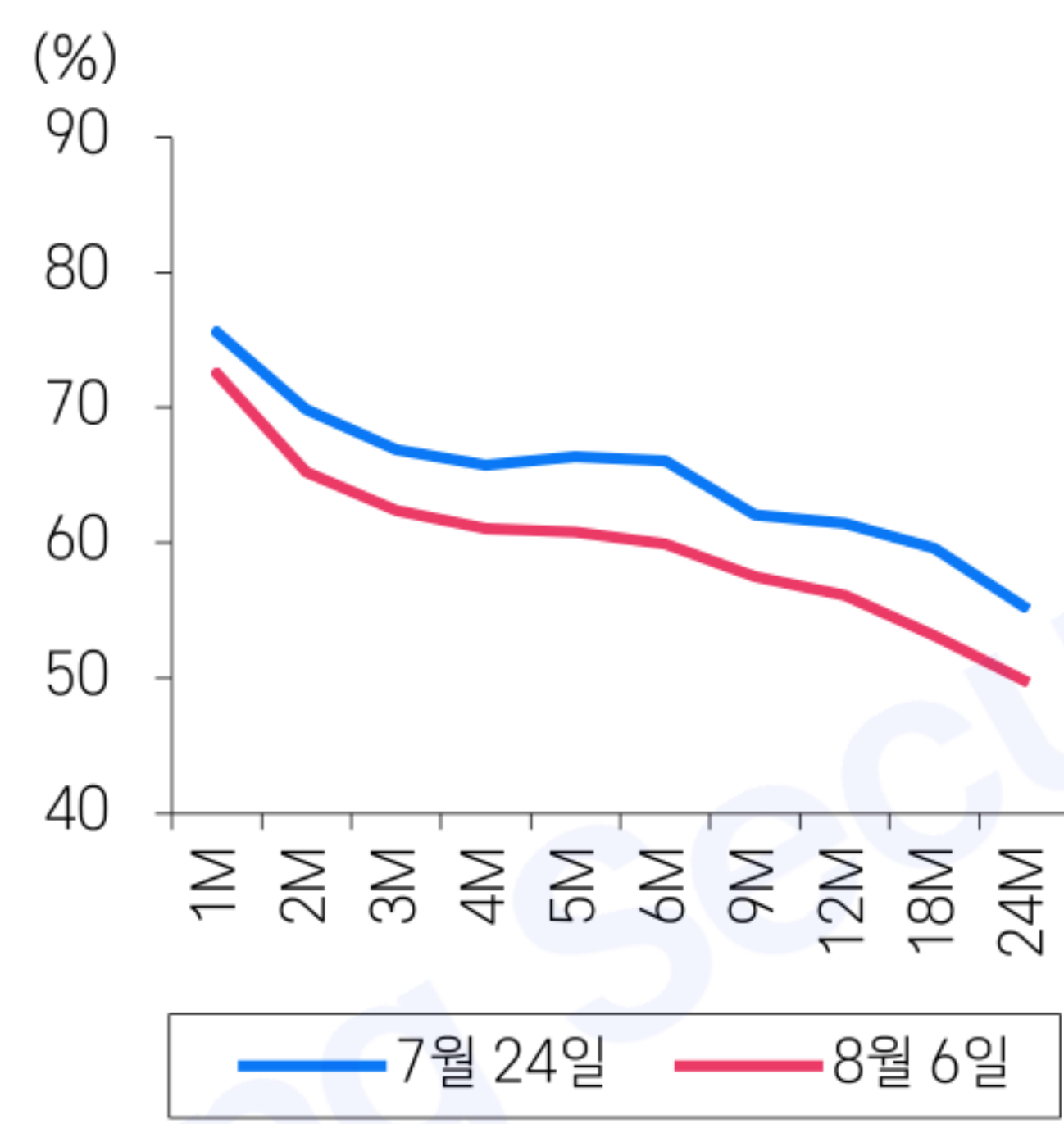
- 대부분의 시장에서 단기 중심으로 변동성 하락
- 한국, 여전히 분산스왑 기울기는 역전되어 있지만 전 구간에 걸쳐 변동성 하락
- 일본, 분산스왑 기울기 정상화 및 단기 변동성 하락
- 홍콩과 대만, 단기변동성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
- 글로벌 주식시장, 3분기 변동성 완화국면으로 진입

S&P500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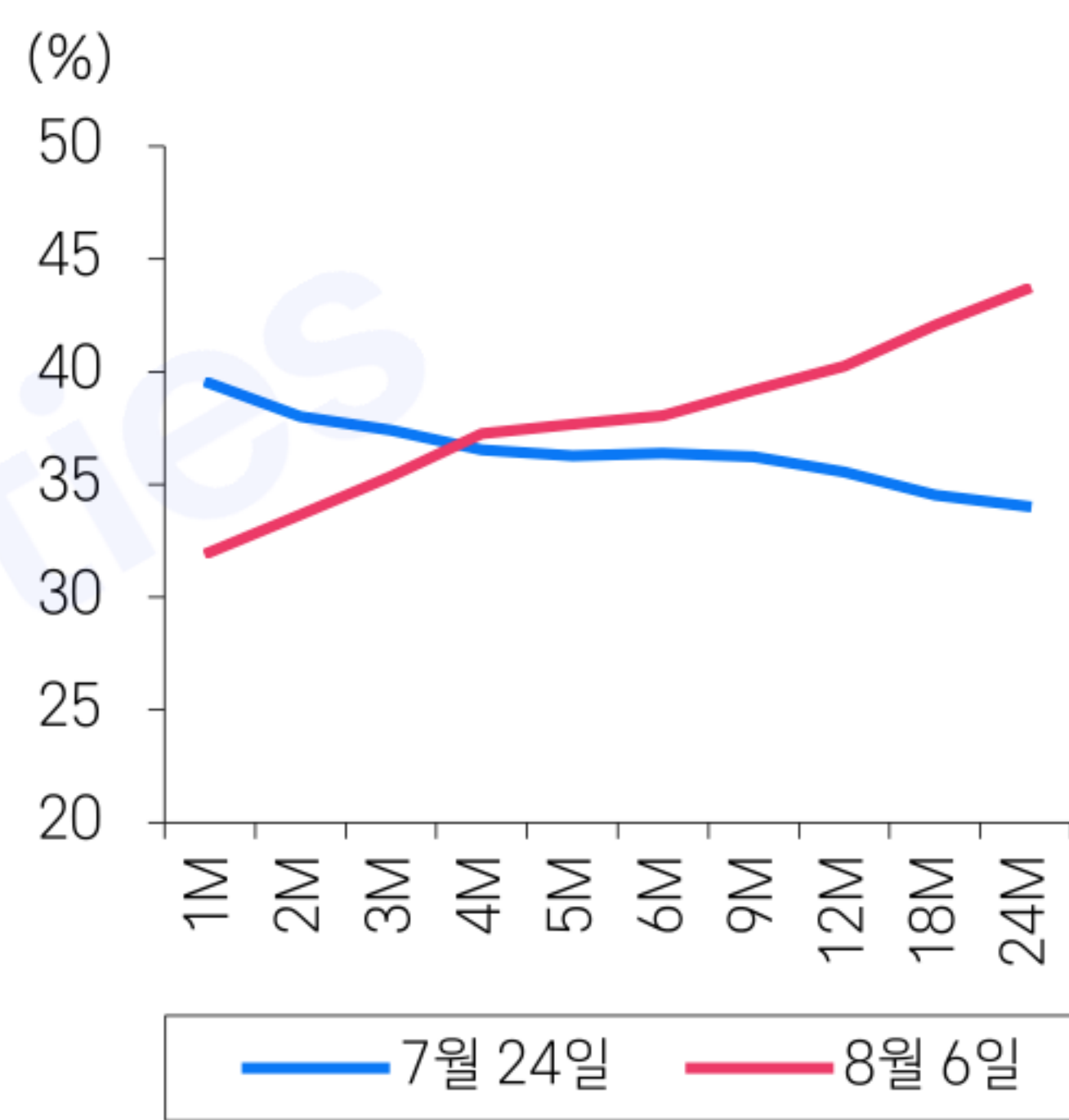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KOSPI200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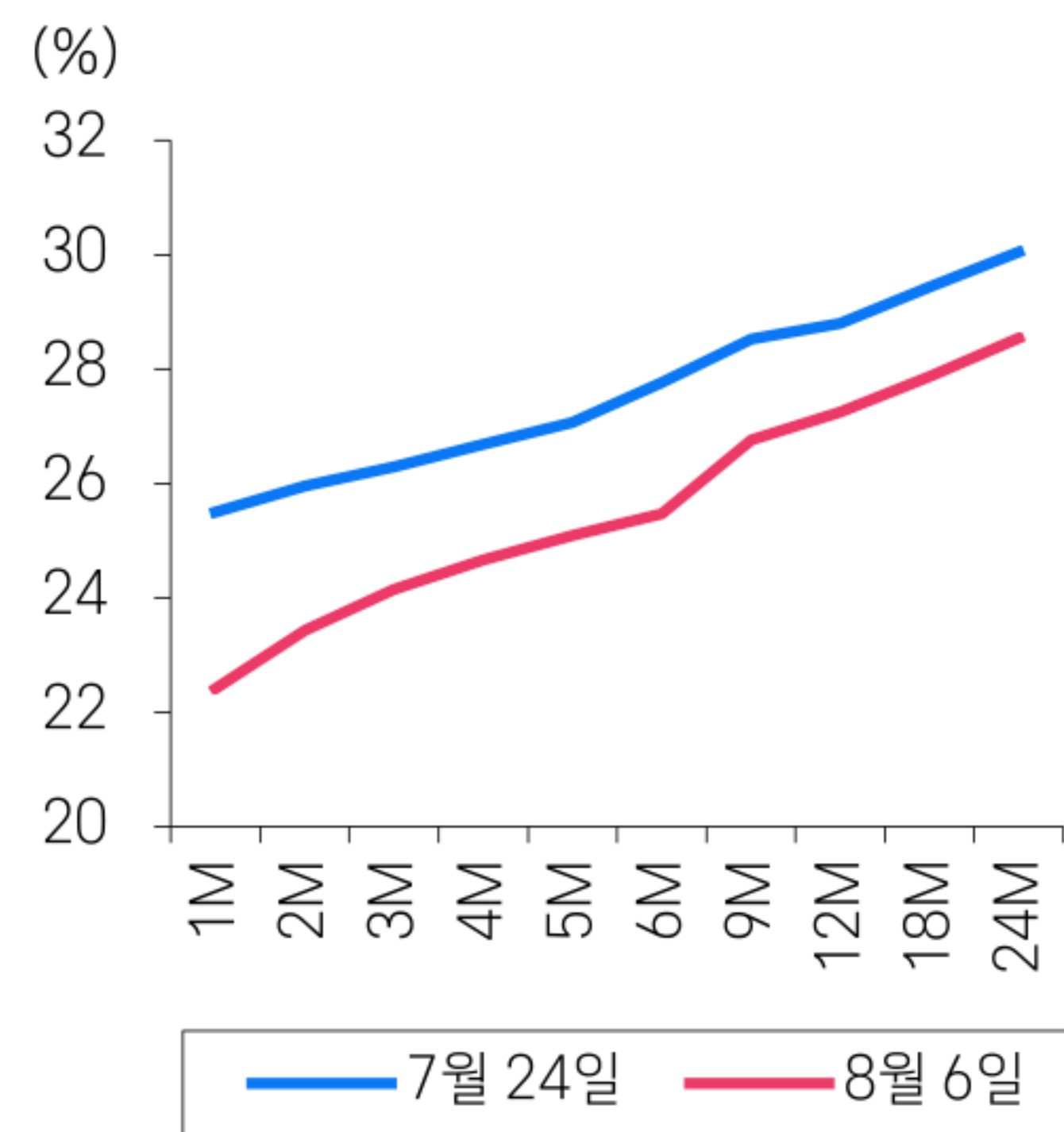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Nikkei225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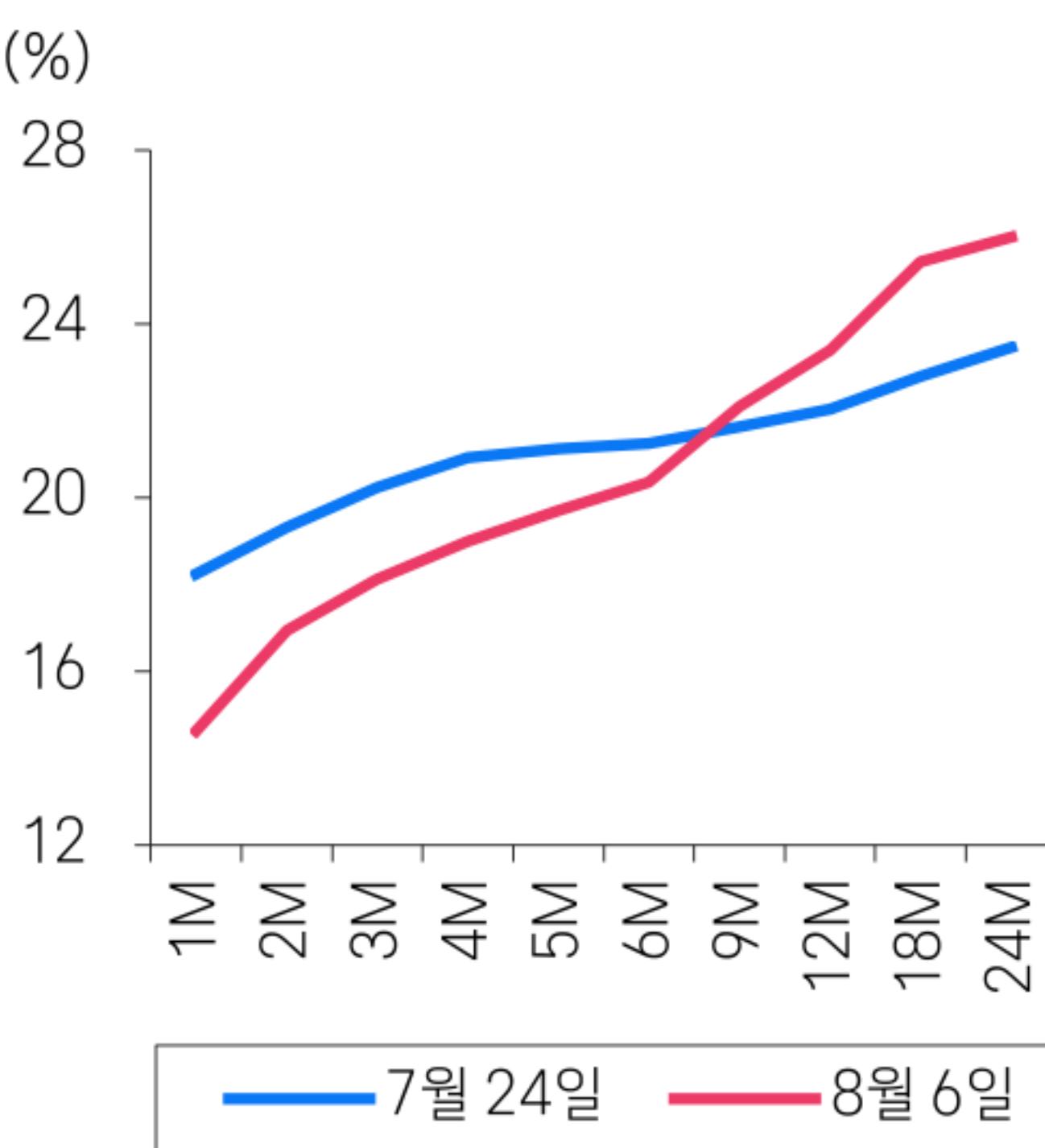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HSCEI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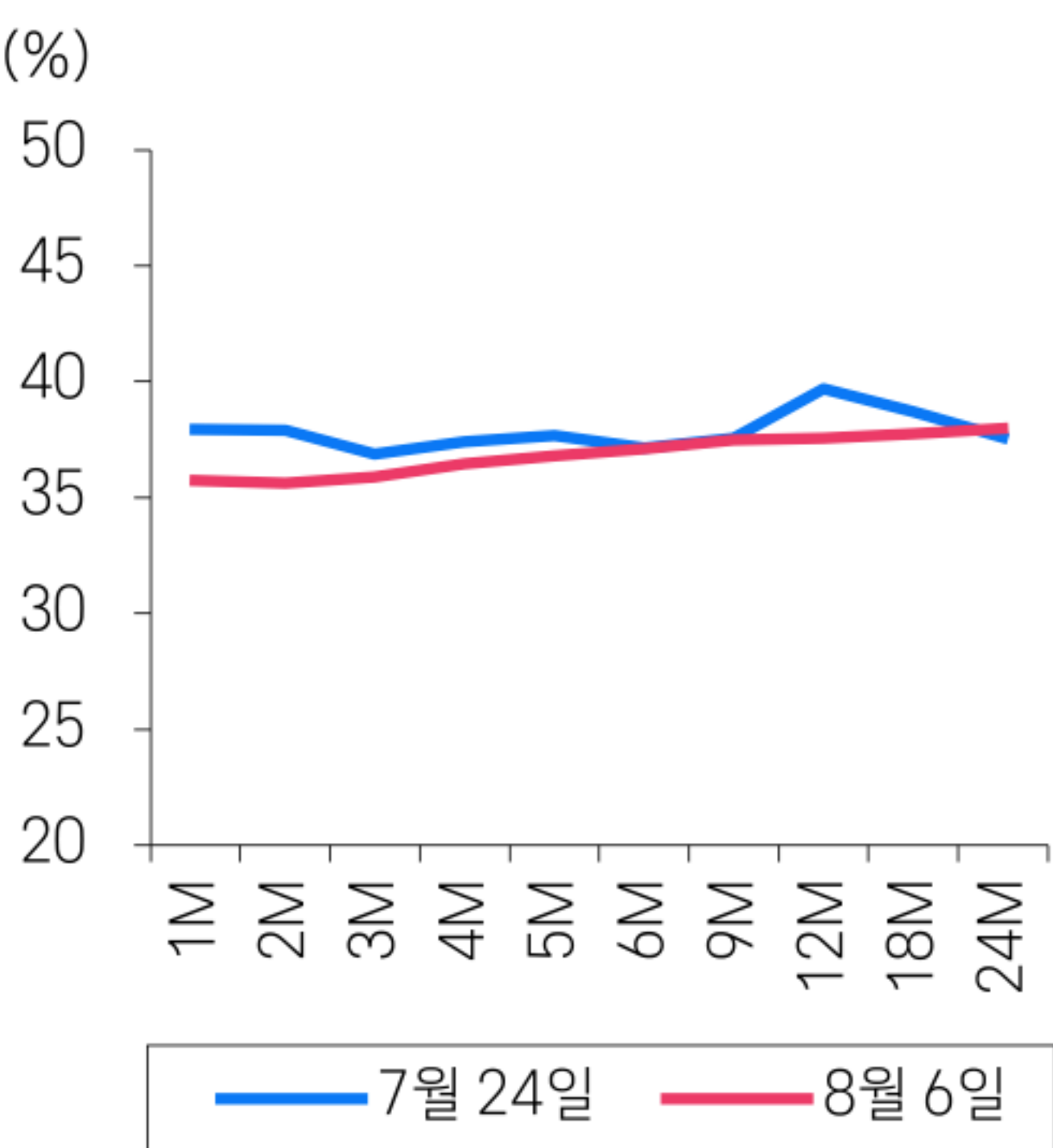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toxx50 Variance Swap
Term-structur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TWSE Variance Swap
Term-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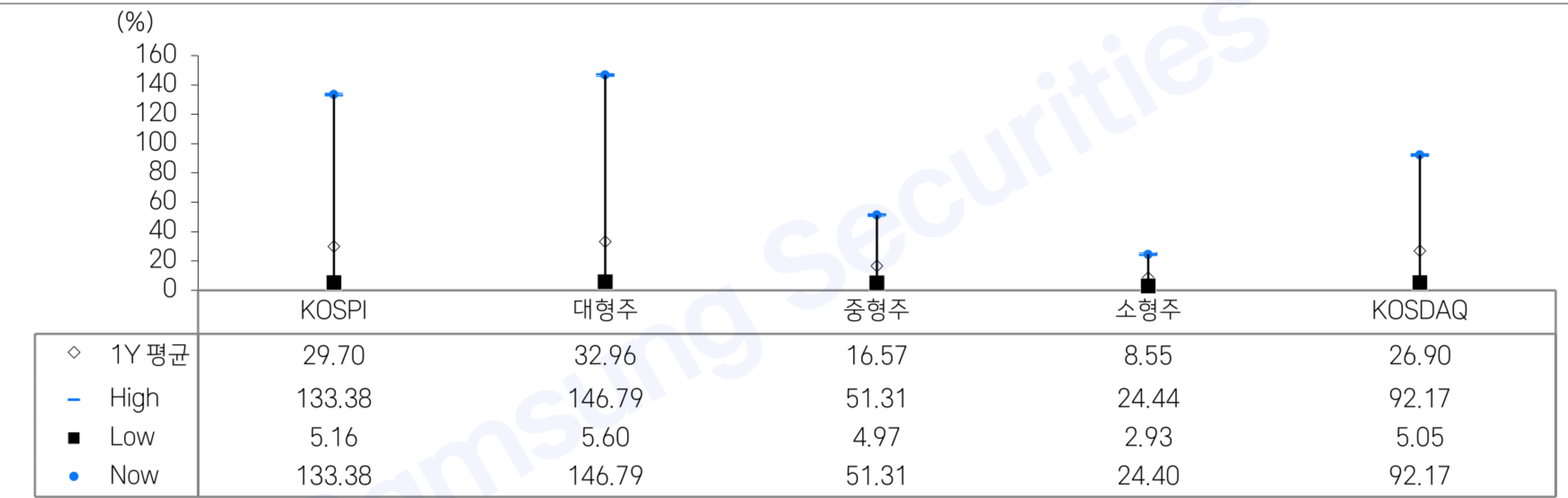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주식시장 역사적 변동성 분포

(KOSPI & KOSDAQ) KOSPI 대형주의 급등락 반복으로 KOSPI와 KOSDAQ 모두 연일 변동성 수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7월말 ~ 8월초 주식시장의 좁은 등락이 발생하면서 변동성 진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하단의 변동성 분포는 분석기간을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모두 반영하고 있어 실제 체감하는 변동성 수준에 비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 수준이 높게 형성됨. 8월 중순이후 변동성의 빠른 하락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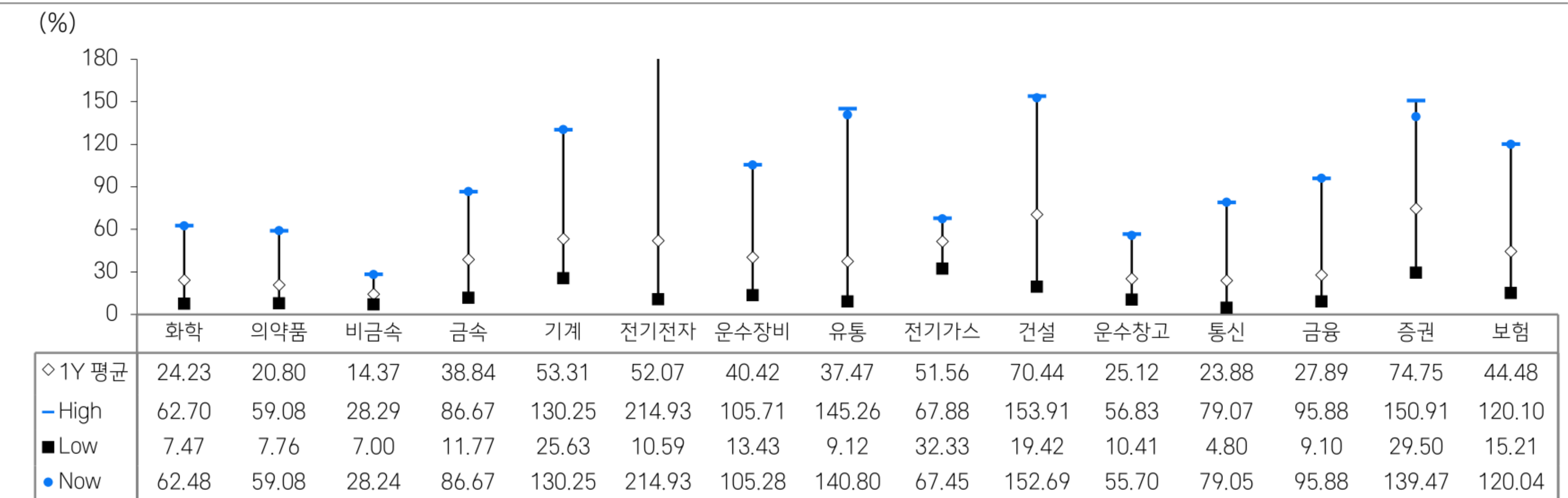
(KOSPI 산업지수) 시장 변동성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업종 변동성 수준은 미세하게나마 1년중 고점에서 소폭 하락반전하는 양상이 나타남. 유통과 증권업종의 변동성 수준이 1년중 고점 대비 3~5% 하락하였으며, 운수장비와 전기가스, 건설과 운수창고 등 경기방어적 성향의 업종들 변동성 수준이 1년중 고점에서 미세하게 하락 반전하였음. 8월 주식시장의 기간조정이 진행되는 구간에 변동성 하락이 상대적으로 빠른 업종 중심으로 반등탄력이 강화될 수 있음.

KOSPI 시가총액규모지수 및 KOSDAQ 역사적 변동성 분포



참고: 일별 시/고/저/종가를 대상으로 Garman-Klass 변동성산출방식을 적용함. 60일간 변동성을 연율화함, 8월 6일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KOSPI 산업지수 역사적 변동성 분포



참고: 일별 시/고/저/종가를 대상으로 Garman-Klass 변동성산출방식을 적용함. 60일간 변동성을 연율화함, 8월 6일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주식시장 Data

- 한국 주식시장이 7월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연출하고 있음.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일본, 중국 주식시장과의 동조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미국 주식시장과는 동조성의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됨. 3분기 각국의 펀드멘털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의 동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임. 특히 환율과 내부 정책방향에 따른 한/중/일의 동조성 약화 여부가 주목할 부분임.
- N일후 예상 지수대는 직전 주가 추세와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당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변동 가능한 주가패턴의 상단과 하단을 추정하는 것임. 현재는 비추세 국면으로 상하단 가격밴드가 확산되는 패턴임. 당분간 비추세 구간이 지속되면서 등락폭이 좁혀지는 시기에 상하단 가격밴드의 이탈이 새로운 추세의 모멘텀을 작용할 것임.
- 외국인, 8월에도 7조원에 육박하는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7월 9.3조원 순매도를 능가할 양상임. 7월말 8월초 일시적으로 기록한 주식 순매수는 일부 공매도의 환매와 스마트머니의 유입으로 추정됨. 금융투자가 8월 1조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함. 선물 저평가 진입에 따른 기존 차익매수 포지션의 청산이 일부 진행됨. 연기금은 8월초반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함. 개인이 주식시장 기술적 반등을 주도함.

지수별 기술적 지지/저항대

	KOSPI	K200
종가	6,258.71	974.72
피봇 2차 저항선	6,674.50	1,048.73
피봇 1차 저항선	6,485.44	1,015.83
피봇 포인트	6,361.88	995.78
피봇 1차 지지선	6,172.82	962.88
피봇 2차 지지선	6,049.26	942.83
20일중 MAX	7,791.66	1,251.83
20일중 MIN	5,262.77	8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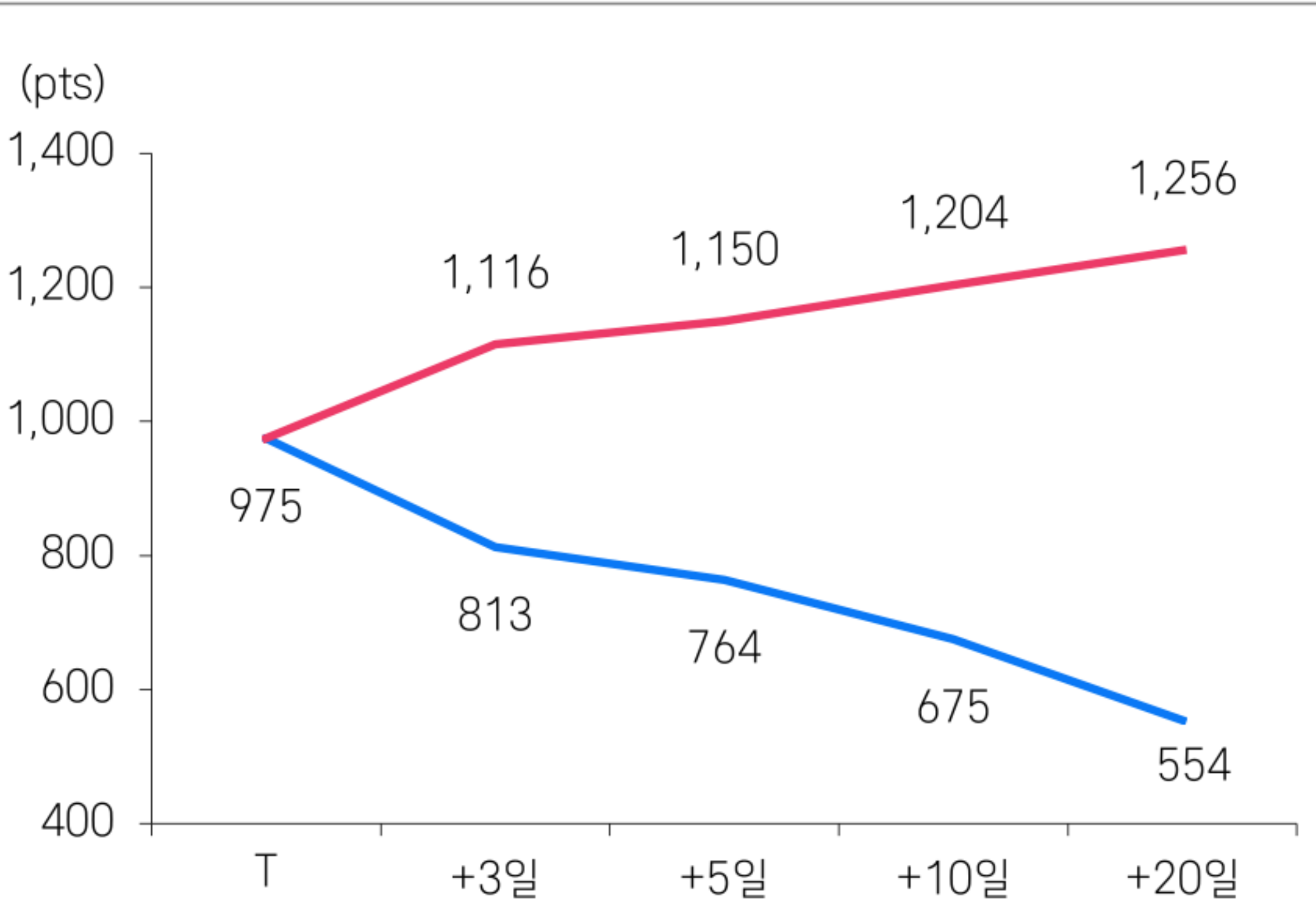
참고: 8월 7일 현재
자료: KRX, 삼성증권

시장별 상관관계 분석

	KOSPI	KOSDAQ	Nasdaq	N225	중국상해	항셍
KOSPI						
KOSDAQ	0.67					
Nasdaq	0.46	0.61				
N225	0.60	-0.08	0.14			
중국상해	0.79	0.83	0.53	0.22		
항셍	-0.45	0.16	0.22	-0.76	-0.21	
변동성 (%)	79.6	65.8	21.8	34.2	17.5	18.6

참고: 60일 일별 수익률의 상관계수, 변동성은 60일 수익률의 표준편차 연율화
자료: KOSCOM, 삼성증권

KOSPI200 예상 지수대 전망



참고: 지수의 변동성과 신뢰수준을 고려한 상하단 예상 지수대 전개
자료: KRX, 삼성증권

투자자별 KOSPI200주식현물 연간 순매수

(십억원)	2026년	2025년
외국인	(191,794)	(13,053)
개인	148,512	(14,993)
기타	16,283	11,425
금융투자	55,091	27,849
투신	(11,423)	(6,272)
은행	(3,413)	(3,438)
보험	(7,379)	(4,467)
연기금	(8,160)	2,056

참고: 8월 7일 현재, 투신은 사모 포함
자료: KRX, NXT, 삼성증권

프로그램매매 관련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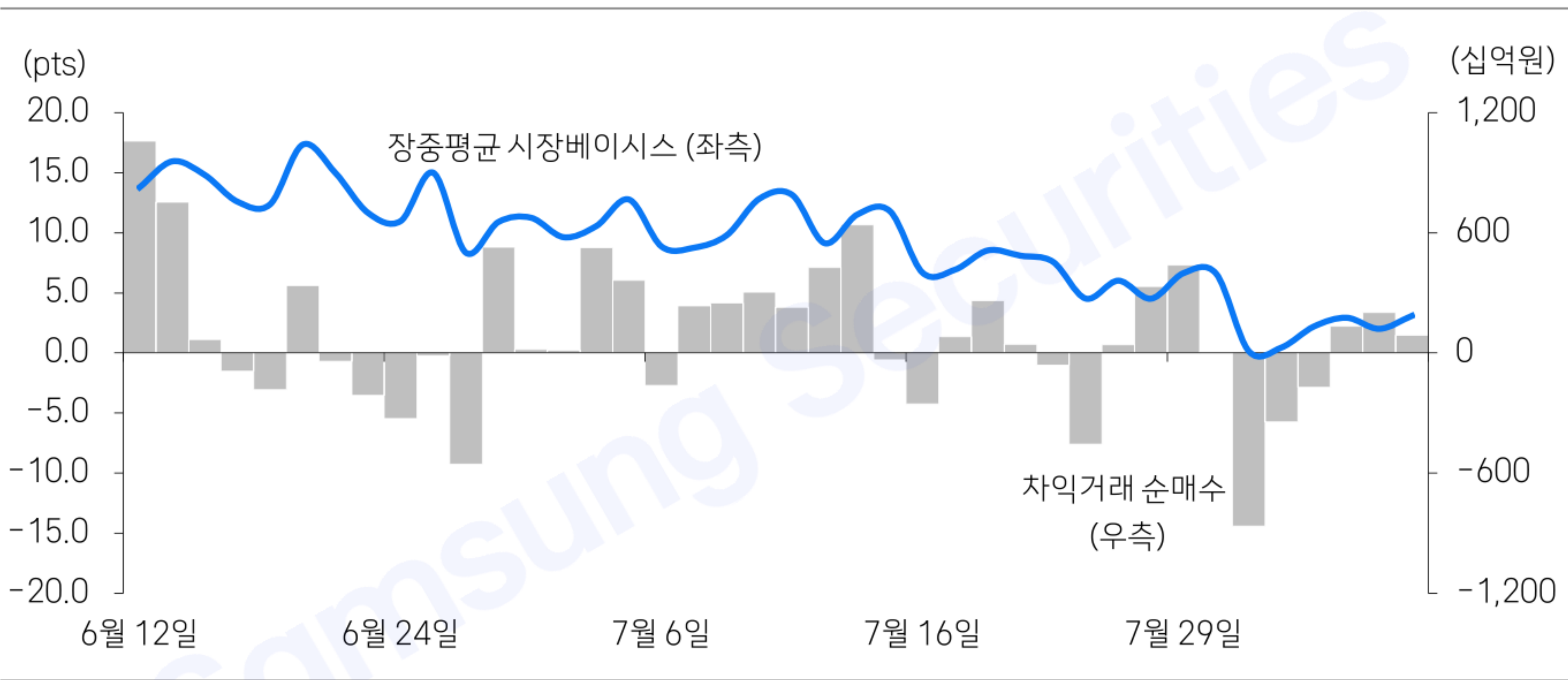
KOSPI 프로그램 매매

- 외국인, 8월 4영업일 만에 7월 비차익 순매도 규모에 근접하는 매도압박
- 연기금, 2개월 연속 비차익 순매수로 주식비중 확대
- 금융투자, 선물 저평가 상태 진입으로 기존 매수차익 일부 청산
- 8월,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 반전여부 주목

KOSDAQ 프로그램 매매

- 외국인,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차익매도를 8월에 진행
- 연기금과 투신, 7월의 순매도에서 8월 순매수로 반전
- 외국인, 코스닥시장 반등국면에서 비차익매도 지속여부 주목

시장베이스스와 일별 차익거래 순매수 추이 (KOSPI200선물 최근월물)



참고: 시장베이스스는 장중평균
자료: KRX, NXT, 삼성증권

KOSPI시장 투자자별 프로그램매매 순매수

(십억원)	증권	보험	투신	연기금	외국인
차익					
'26.3월	(122)	(8)	(660)	6	(11)
'26.4월	1,140	0	127	42	4
'26.5월	167	(7)	(131)	1	(13)
'26.6월	(339)	0	(160)	234	52
'26.7월	3,017	(4)	(142)	(12)	562
'26.8월	(138)	10	(69)	2	(254)
비차익					
'26.3월	737	(182)	(825)	(293)	(27,831)
'26.4월	1,434	(787)	(359)	(839)	1,079
'26.5월	590	(1,618)	(1,861)	(1,267)	(31,302)
'26.6월	1,874	(875)	(2,596)	(2,061)	(43,198)
'26.7월	1,820	158	161	211	(8,686)
'26.8월	251	136	(75)	15	(6,861)

참고: 투신은 사모포함, 8월 7일 현재
자료: KRX, NXT, 삼성증권

KOSDAQ시장 투자자별 프로그램매매 순매수

(십억원)	증권	보험	투신	연기금	외국인
차익					
'26.3월	(701)	0	(4)	13	0
'26.4월	(86)	1	(1)	0	0
'26.5월	(110)	1	(6)	0	23
'26.6월	30	0	0	30	0
'26.7월	25	0	0	0	0
'26.8월	29	0	0	0	0
비차익					
'26.3월	101	11	(277)	4	319
'26.4월	37	(52)	69	(49)	(912)
'26.5월	(16)	(76)	(430)	(91)	2,412
'26.6월	(78)	(43)	65	(35)	741
'26.7월	34	(11)	(318)	(11)	(289)
'26.8월	(7)	5	39	13	(1,477)

참고: 투신은 사모포함, 8월 7일 현재
자료: KRX, NXT,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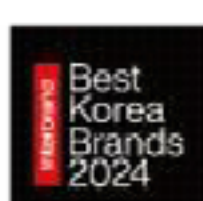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